



각종 경제지표들이 최악의 경제난을 겪었던 오일쇼크 또는 외환위기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6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과거 오일쇼크에 근접한 수준까지 급등하면서 수입물가는 지난 80년 이후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벼랑끝 한국경제, 비상구가 없다

물가·경상수지 등 모든 경제지표 '위험수위' 수입물가 상승률도 오일쇼크후 최대폭 급등 기업 체감경기 급락세 ... 투자 8년만에 최악

◇비경제활동인구 1천500만명 돌파=한은은 올해 취업자 증가인원이 19만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03년(3만2000명 감소)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연도별 증가인원은 2004년 41만8천300명, 2005년 29만9천명, 2006년 29만4천700명, 2007년 28만2천명 등이었다. 올해 실업률은 평균 3.2%로 한은은 예상했다.

이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는 올해 평균 1천520만7천명으로 작년의 1천495만4천명에 비해 25만3천명이 증가할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1천500만명을 돌파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수입물가, 오일쇼크후 최대폭 급등=5월중 수입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44.6% 올라 지난 98년 3월 49.0% 이후 10년여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원유·곡물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는 데다 원·달러 환율

까지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률은 83.6%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80년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입물가가 뛰면서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가 10년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순상품 교역조건 사상 최악=순상품 교역조건 지수가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1.4분기 순상품 교역조건지수(2005년=100)는 작년말에 비해 6.7% 하락한 80.5를 나타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가장 낮다.

순상품 교역조건 지수는 한 단위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뜻한다. 이 지수가 80.5라는 것은 2005년에 동일한 물량의 수출로 100개를 수입할 수 있었다면 올해 1분기에 80.5개만 수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상수지 10년만에 적자=한국은행은 올해 경상수지가 90억달러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가 마이너스인 것은 1997년 82억8천740만 달러 적자 이후 11년만에 처음이다.

◇호주머니 사정, 외환위기 상황으로=소득지표들도 지난 9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소득지표들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차 오일쇼크 때인 80년대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등 두 차례 뿐이었다. 소득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소득이 1년 전에 비해 줄어든다는 뜻이다.

◇유동성 증가세 9년만에 최고=최근 물가불안은 국제 원자재급 등등 등 공급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이지만 과도한 시중유동성에 따른 수요측 요인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 등을 포함한 광의통화(M2.광잔)는 올해 1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로 13.3% 늘었다. 분기 기준으로는 99년 2분기의 17.5% 이후 9년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투자 8년만에 최악=투자는 8년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확실해지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꺼

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4분기의 기계류 투자는 작년 같은 분기에 비해 0.9% 감소했다. 기계류 투자가 줄어든 것은 2001년 이후 처음이다.

◇기업 체감경기 10년만에 최악=제조업의 체산성에 대한 체감은 10년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천9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6월 기업경기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6월 업황지수(BSI)는 77로 전월의 85에 비해 8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2006년 8월의 7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제조업의 체산성 BSI는 6월에 68로 전월의 76에 비해 8포인트 떨어졌다. 이 지수는 98년 3.4분기의 53 이후 가장 낮다. 2003년부터 월 단위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수출기업의 체산성 BSI는 83에서 72로 11포인트, 내수기업 체산성 BSI는 72에서 65로 7포인트 각각 내려갔다. /연합뉴스

“물가 6%대 3년 지속”

원유·소비재 등 수입물가 급등 영향으로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최근의 수입물가 급등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수입물가 급등이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4~5월중 수입물가는 월평균 38% 상승했고 이로 인해 향후 3년에 걸쳐 매년 3.7%포인트의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작년 2분기 물가상승률 2.4%를 기준으로 당장 올해부터 6.1%까지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200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물가지수 장기관계를 활용, 수입물가

가 10% 상승할 때 소비자물가가 35개월에 걸쳐 2.9%포인트의 상승압력을 받는다는 추정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원은 “다른 외부 여건이 변하지 않는 한 6%대 물가상승률이 가능한 만큼 정부는 현재 2.5~3.5%인 중기 물가관리목표를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3년 정도는 내다보는 중기 물가안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고유가·원화약세 이외에 “위안화 절상 등으로 중국의 수출물가가 빠르게 상승한 데 따른 ‘차이나 인플레이션’도 수입물가 급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화려한 '카테일 쇼' (주)광주신세계가 주최한 '카테일 쇼'에서 진행자가 불을 뿜는 묘기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4일 이마트 지하 1층내에 위치한 패션스트리트에서 '카테일 쇼'와 '카테일 제품'을 선보였다. /연합뉴스

(주)광주신세계가 주최한 '카테일 쇼'에서 진행자가 불을 뿜는 묘기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4일 이마트 지하 1층내에 위치한 패션스트리트에서 '카테일 쇼'와 '카테일 제품'을 선보였다. /연합뉴스

곡물 수입가 28년만에 최고 상승

5월 중 45% 올라 ... 옥수수 3년만에 3배 뛰어

곡물 수입가격이 품목에 따라서는 해방 이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곡물가격 상승은 각종 식품류와 의식 등의 가격을 끌어올려 유가 급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타격을 주고 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 수입물가지수의 전년 동월대비 상승률은 지난 5월에 44.8%로 1980년 12월 48.3% 이후 28년만에 최고치였다.

특히 올들어 밀의 수입가격 상승률은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 품목의 가격 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올해 1월 140.3%, 2월 171.9%, 3월 140.8%, 4

월 126.0%, 5월 127.5% 등이었다. 작년 말까지 최고의 상승률은 1974년 2월의 101.4%였다.

한은 관계자는 “곡물가격 통계는 1971년부터 만들기 시작했으나 해방후부터 1970년까지의 기간에도 올해 만큼의 상승률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옥수수 수입가격 지수는 2005년을 100으로 했을 경우 지난 5월에 263.6에 이르렀다. 불과 3년만에 거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뛴 것이다. 옥수수 수입가격 지수는 작년 12월 138.3에서 올해 1월 220.0, 2월 226.0, 3월 244.3, 4월 249.9 등으로 빠르게 올라왔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292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17 18 31 32 33 34	10	
등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720,373,950
2	5개 숫자 일치	45,428,988
3	5개 숫자 일치	995,778
4	4개 숫자 일치	50,256
5	3개 숫자 일치	5,000

팝콘복권 (제115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5조 281007
2	1억	5조 545175
3	1천만	4조 316798
4	1백만	44611
5	50만	3022
6	2천	81
7	1천	40
		43
		5
		4
		1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통합 징수 추진

당정 관련 법률안 제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의 통합이 추진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에서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합의되고, 조만간 국회에 사회보험 통합 징수법을 골자로 한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또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보험료 통합

징수 주체는 별도의 징수공단을 설립하기 보다는 건강보험공단이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징수를 통합할 경우 보험에 따라 별도로 내야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비용의 낭비를 막는 효과가 있다”면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정 간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4대 사회보험의 징수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

험),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으로, 이들 4대 보험은 국가가 질병·실업 등으로 국민을 보호해 주는 사회보장 성격의 공보험이다.

그동안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운영이 3개 공단과 보건복지부가족부, 노동부 등 2개 부처에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려면 제각각 찾아나서야 하는 불편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커리어서치	금호타이어광주주요부속 PC개발팀 사무보조사원직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7/07	062-515-0026
☎대창 E&T	SK텔레콤 대형대리점/에너지 사업부 정규직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7	062-383-6831
☎선진일미음	HG물체5톤/기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8	062-956-4780
☎아이인텔서비스	LG텔레콤 서부고객센터 상담사(정규직)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7/08	062-601-7213
☎에스디실내건축	CAD/일반사무/인테리어설계/현장담당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9	062-262-1355
롯데자산개발	[광주]정보팀(현장조사 업무) 사원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7/09	02-2086-3022
☎보문	정규직 일반사무업무 여사원 (토목관련자 우대)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9	062-651-8504
☎화인코리아	[생산관리/공무/식품개발] 정규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9	061-330-4523
경성닷컴	[교육부/홍보부/업무부]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0	062-234-8526
☎신우산업	건축기계설비,환경,공조/공무/견적 경력직	대졸/경력2년	2800~3000	07/10	062-972-1865
(재)전남문화산업진흥원	(재)전남문화산업진흥원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1	061-286-5434
☎그린텔	KTF 광주점서비스센터 인바운드 상담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1	042-223-4900
드림보습학원	중/고등 수학교사 및 초등 보습 교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2	062-382-2366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3년 연장 추진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시한을 2012년 12월로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금리가 연 4~5%인데 최근 물가 상승률은 5%를 넘고 있어서 이자소득세(주민주택 포함 15.4%)를 내게되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때문에 비과세 시한을 3년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상품으로 7년 이상 가입하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고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까지 해주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목돈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대표적인 재테크 상품이다. /연합뉴스